

민주당 vs 安 신당 대결 속 당내 경선 치열

무안군수

내년 무안군수 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 등 향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두 정치인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의원과 서 전 군수가 각기 다른 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는 이들의 총선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서 전 군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잇따라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해 군수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또 남악 등 신흥 도심 지역의 발달로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 안철수 신당에서도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철주 현 군수와 민주당 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인 나상욱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또 안철수 신당으로는 김호산 안철수 신당 기획위원, 박만호 전 행정지원국장, 임덕

후보들 쟁쟁 ... 본선보다 뜨거울 듯

경선 탈락자 무소속 출마 할 수도

수 무안군의회의 의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선수’를 선발하는 1차전을 치르고, 본선에서 뜨겁게 맞붙는 형국으로 선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도 쟁쟁해 본선 못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철주 군수는 민주당 공천을 자신하면서 최근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약사 출신인 그는 7·8대 재선 전남도의회의원을 지내고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행정·의정 경험이 장점이다. 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득, 교육, 생활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약을 만들고 있다. 남악은 도청 이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내

년에는 8만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다른 농촌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이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으로 정책 선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호산 기획위원은 안철수 신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이미 안철수 신당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기획위원으로 일하며, 남악 일대의 젊은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농민운동 등 다양한 재야활동을 했고, 아태재단과 한화빌 전 대표를 보좌하며 정치적 감각을 익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상욱 조합장도 민주당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김

					
정당 이름(나이)	민주당 김철주(57)	안철수 신당 김호산(51)	민주당 나상욱(62)	안철수 신당 박만호(61)	안철수 신당 임덕수(57)
주요경력	· 무안군수 · 전전남도교육지 · 원청 비서실장	· 안철수 신당 기획 · 위원	· 목포무안신안 · 축협조합장	· 정책네트워크 · 내일 실행위원 · 전전남도 행정지 · 원국장	· 무안군의회의장

※ 후보는 가나다 순

군수와 팽팽한 당내 경선을 펼치는 등 입지가 탄탄하다. 오랜 기간 축협 조합장을 지내며 쌓은 인맥이 풍부하고, 임기 중 성공적인 조합 운영으로 지지 세력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만호 전 국장도 안철수신당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의원 선정된 뒤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내 각종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과 만나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선 참여 의사는 밝히지 않고

여론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

임덕수 의장도 안철수 신당의 떠오르는 후보 중 한 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번수 지역인 남악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다는 점이 강점이다. 군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지내는 등 기초의회 경험도 풍부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공약 개발과 함께 “소의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광록·김민준기자 kroh@

잇단 무소속 당선... 현 군수-민주-安신당 각축

신안군수

신안군은 지난 두 차례 군수 선거에서 잇따라 무소속이 당선되는 등 이번이 속출했던 곳이다. 지역성이 강한 섬 특성상 지지 후보가 뚜렷하고, 박우량 현 군수의 무소속 3선 도전과 끈끈한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후보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내 경선도 뜨겁고, 선거가 본격화되면 박우량 군수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들간 연합도 예상된다.

가장 흥미로운 판전 포인트는 박우량 군수와 고길호 전 군수 간 대결이다. 고 전 군수는 현재 무소속 상태지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전 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노린다면 김승규 기획재정부 국장, 박석배 민주당 무안신안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남상창 전 진도부군수, 임흥빈 전남도의회의 의원 등 무려 5명이 당내 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안 군수 선거는 뜨거운 민주당 내 1차 경선 다툼과 지지세가 탄탄한 박우량 현 군수에 안철수 신당으로 분류되는 신정식

후보 간 본선 경쟁으로 압축할 수 있다.

고길호 전 군수는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 명확하게 출마나 민주당 공천 과정의 참여의사를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또 민주당 공천 과정에 참여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도의원과 신안군수를 역임하며 인맥과 조직력이 탄탄한 고 전 군수의 행보

■ 신안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이름(나이)	무소속 고길호(68)	무소속 김승규(57)	민주당 남상창(62)	민주당 박석배(50)	무소속 박우량(58)	안철수 신당 신정식(47)	민주당 임흥빈(53)
주요경력	· 전신안군수	· 기획재정부 국장 · 전전남지사 · 경제정책보좌관	· 법무사 · 전 진도군 부군수	· 민주당 무안신안 ·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신안군수	· 전민주당 조직국장	· 전남도의회 의원

※ 후보는 가나다 순

현 군수 對 고길호 전 군수 대결 뿐만

민주당 공천 놓고 치열한 경쟁 예고

는 내년 신안 군수 선거의 변수 중 하나다.

오랜 공직 생활이 장점인 김승규 후보는 현재 민주당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등 요직을 겸했고, 전남지사 경제정책 보좌관 등을 지낸 이력도 내년 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상창 전 부군수도 착실하게 당

내 공천을 노리고 있다. 전남도청 노인복지과장 등을 지내는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또 민주당 전남도당 서남권경제자유구역지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당내 활동도 활발하다. 후산면장 등을 역임해 신안 지역 상황에 밝은 점도 강점이다.

박석배 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 관리국장을

맡는 등 중앙 정치와의 인연이 깊다.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내며 쌓은 인맥도 풍부하고, 선거 경험이 많고, 중앙당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승부를 자신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의 행보도 관심사다.

만약, 내년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다면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해 정당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어 박 군수가 내년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 군수는 섬 지역과 종교계의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승리하는 등 선거 조반 분위기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다.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신정식 후보는 안철수 신당 공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역 내 인지도가 낮고, 이 지역의 ‘안철수 바람’이 아직은 잠잠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임흥빈 의원은 오랜 민주당 활동과 인맥 등을 토대로 당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도의원을 지내며 지역 발전을 이끈 점 등이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지지기반도 탄탄하다. 무엇보다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관계가 좋고, 중앙당의 평가도 괜찮아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이상선기자 kroh@

■이슈&변수

유권자 많은 남악 선거 판세 가름

남악개발이익금 해법 등 공약 대결

무안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낙악신도시에 다양한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유권자가 몰려 있다는 게 가장 큰 선거 변수다.

또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남악개발이익금 분점과 무안기업도시 무산 공방 등 정치적 이슈도 많다.

남악에는 무안군 전체 인구 35%가량이 몰려 있어 선거의 판세를 이끌 어갈 것으로 보이며, 남악에서 바람이 불면 농어촌 지역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거 선거는 일로, 청계, 삼향, 문탄 일대와 환경, 해제, 망운, 운남 일대 등지로 나뉘어 지지 후보가 갈라기도 했지만 내년 선거에서는 남악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철수 신당에서 “정책적으로 ‘남악에 강한 후보’를 낼 것”이라

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해 남악에서 강점을 가진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남악의 선택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이슈는 남악개발이익금 분점과 오토리구 개발 등이 손꼽힌다. 수년째 전남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악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방안 등이 정책 선거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또 무산된 무안기업도시 이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공약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광록·김민준기자 kroh@

■이슈&변수

섬 특성상 유권자들 지지후보 뚜렷

지지세 엇비슷... 합종연횡 가능성도

신안군수 선거는 전통적으로 ‘섬 지역간 대결’로 진행됐다. 지역성이 강한 섬이 많아 도초와 앞대, 안좌 등 지도상 아래쪽의 섬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와 지도, 앞자 등 위쪽 섬의 지지후보가 뜨겁게 대결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안군수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누구의 지지 세력이 누수 없이 결집하고, 본선을 포기한 제2, 제3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다.

또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한 일부 후보의 무소속 출마와 합종연횡 등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섬지역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둘러싼 후보들 간 정책 다툼도 예상된다.

신안은 지난 두 차례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등 ‘정당’보다는 ‘사람’에 표가 몰렸다. 특히 고향 후보나 직·간접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은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신안군 선거는 배를 타고 24시간 돌아다녀야만 이길 수 있

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섬 지역이 많아 선거운동도 쉽지 않고, 주민끼리 연대가 끈끈하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탄탄한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구다.

최근 일부 섬 지역 후보들이 계속 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다른 섬들의 연대 움직임도 있다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 수년 동안 군수를 내지 못한 섬들이 “이번 만은 우리 섬에서 군수가 나와야 한다”며 결집하고 있어 일부 후보들의 의외의 선전도 예상된다.

지지 후보가 뚜렷하기 때문에 후보 간 연대의 파급력도 큰 지역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서 낙오된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한 무소속 도전도 변수다. 일부 후보들의 지지세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후보 간 연대는 당선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낙후된 섬 지역 발전 전략과 서남권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 등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선거 과정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이상선기자 kroh@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APT코너

신축 4층 룠 19개
(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정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정문

룸 18개 월수익 580 매가 7억

수완지구 수익성상가(매매·임대)

수완지구 상가 임대

★1층 상가매매 17.5평 매가3억5천★
대방5차 APT후문 코너

★3차 상가 매매 85평 매가 3억3천★
모아APT 후문 보증금 3천 월 200만 용 2억5

★3층 상가매매 62평 매가 2억6천★
세계로 병원 대로변 보3천 월160만

★수완지구 1층 (18평)★
보3천, 월 130만 (의류, 부동산 네일, 화장품, 적합)

★3층 상가(62평)★
보3천, 월 160만 (학원, 병원, 사무실, 매매가능)

쌍촌동 원룸 빌라
(APT소형)매매

▶11평형 매가 3200만
▶12평형 매가 3300만
▶15평형(투룸) 매가 4000만

주) 대신 ☎010-6670-9800 (062-352-5584)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층,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자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할용지라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금 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화원면 조선배후
단지 가능

밭,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